

2017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보고서

기간 : 2016년 7월 28일 ~2017년 7월 27일

발표 : 2017년 5월 11일

문서번호 : E/2017/66

<서론>

1. 우리는 유엔 총회에서 결의문 70/183의 83항으로 요구하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본 보고서를 고위급 정치포럼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여 사무총장이 매년 작성한다. 이 보고는 유엔 통계위원회가 2017년 3월에 개최한 제 48차 회기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평가 지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E/2017/24, 제 1장 A 섹터 및 annex I 참조)
2.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 현재 취합 가능한 지표들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진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직까지 방법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지표들의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대부분의 지표 값은 국제, 국가별, 지역별의 집계 를 나타낸다. 이 지표들은 국제 기구가 수집한 국가 통계 시스템의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국가 데이터는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위해 일부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기구에서 추정하여 계산한다.
3. 본 보고서의 지역구성은 유엔의 지리적 지역 구분을 기반으로 하여 일부 국가 그룹 및 지역 구분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영하였다. 제시된 지표들은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집되었으나 설정된 지역 안에서 개별 국가들의 상황 및 지역 평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제, 지역, 국가별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 보고서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 <https://unstats.un.org/sdgs>
4. 2030 의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고 실증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시기 적절하게 분리집계된 양질의 데이터는 필수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상황을 추적하는데 있어 다양한 수준에서의 전례없는 양의 데이터 및 통계가 요구되며 이는 개별 국가 및 전세계적인 통계 시스템 운영에 큰 도전이다. 전 세계의 통계

업계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강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5. 세계 빈곤률은 2000년 이래 반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수입 증대, 고통 경감, 회복력(resilience) 구축을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 재해에 취약한 국가들은 보통 가장 빈곤한 국가들일 확률이 높으며, 이 국가들을 위해서는 사회보호시스템을 확장하고 위험 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13년 기준으로 하루 1.90달러 국제 빈곤선 이하로 살아간 사람들이 약 7억6천7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1999년 기준 17억 명이라는 통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세계 빈곤률이 1999년 28퍼센트에서 2013년 11퍼센트로 감소한 사실에 기인한다. 특히 동아시아, 농담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진척을 보인다. 이 두 지역에서 1999년 35퍼센트에 달하던 빈곤률이 2013년에는 3퍼센트로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42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013년에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지속적으로 처해 있다.
 - 2016년 기준으로 세계의 노동 인구 중 10퍼센트 미만의 사람들이 1인 당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가족과 생활하고 있다. 이는 2000년 기준 28퍼센트라는 통계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최빈국가들(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는 2016년 약 38퍼센트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 산모와 영아, 장애인, 노인, 빈곤층,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각 생애 주기마다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호시스템은 빈곤과 불평등의 예방·감소를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다. 기초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인구의 64퍼센트만이 사회보호시스템의 실질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시스템에서 보장하는 혜택의 범위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퇴직연령 이상 인구의 68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수령하였고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장애 수당을 수령하였다. 하지

만 이러한 세계 평균 수치에 주목하다보면, 지역별로 나타나는 큰 차이들을 간과할 수 있다. 2016년에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퇴직연령 이상 인구의 단 5퍼센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단 21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또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6년 세계 실업자들의 28퍼센트만이 실업 수당을 수령하였고 출산 여성의 34퍼센트만이 출산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고통 받는 나라들의 극심한 빈곤을 끝내기 위한 발전 전략의 핵심은 빈곤층의 회복력(resilience)을 구축하고 재해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전략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현재 한 해 평균 2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저·중저 소득국가들이 가장 높은 재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국가들의 경제 규모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군소도서개발국들이 재난 피해를 불균형적으로 크게 받고 있다.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증진의 성취, 지속가능한 농업의 촉진

6. 2000년 이후 기아와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기아 문제, 불안정한 식량 안보, 영양실조를 종식하기 위하여 더욱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농업 역량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원조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 세계적으로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의 기간 중 세계 인구의 15퍼센트(9억3천만 명)에서 2014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에는 11퍼센트(7억9천3백만 명)로 감소했다.
- 2016년 기준으로 5세 이하의 아동 중 만성 영양결핍으로 인해 나이에 비해 키가 매우 작은 발육 저하 아동의 수는 1억5천5백만 명이었다. 세계적으로 발육 저하 아동의 비율은 2000년 33퍼센트에서 2016년 23퍼센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들이 전 세계 발육 저하 아동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 2016년 세계적으로 약 5천2백만 명의 5세 이하 아동들이 소모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 아동들은 주로 극심한 식량부족과 질병으로 인하여 키에 비해 저체중 증상을 함께 보인다. 2016년 세계적으로 소모성질환의 비율은 7.7퍼센트이며, 중앙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4.8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5세 아동 중 6퍼센트에 해당하는 4천1백만 명이 비만과 과체중이었다.
- 기아 종식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력적(resilient)으로 농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농업과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동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농업과 식량 생산에 필요한 4백7십 만개의 씨앗 샘플과 식물 유전 물질이 82개 국가와 14개의 대륙별 센터 및 국제 센터에 위치한 602개의 종자은행에 보존되었다. 이는 2014년보다 2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 동물 유전자 물질은 저온 저장되어 있으나, 128개국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이 저장된 물질은 국가 재래 품종의 15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저장된 유전 물질의 양은 국가 재래 품종이 멸종될 경우, 이의 7퍼센트만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이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현지 품종의 20퍼센트가 멸종 위험 상태로 분류되었다.
-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 GDP의 분야별 배분 비중에서 정부 지출의 농업 분야 배분 비율을 나타내는 세계농업지향지수(global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는 2001년의 0.38에서 2013년 0.24, 2015년 0.21로 감소하였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부문별 할당 가능 자원 중 농업 분야에 배분한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약 20퍼센트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약 7퍼센트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5년까지 이 비율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감소 수치는 원조의 관심 분야가 인프라 구축과 생산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서 사회 분야 쪽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한다.
- 2016년, 21개국에서 하나 이상의 주요 곡류 식료품 가격이 이전 국내 가격의 최고 수준과 대비하여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국 중 13개 국가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해 있다. 가격상승의 주요한 원인은 국내 생산량의 감소 및 통화가치의 하락, 불안정이었다. 현지의 유가 상승 또한 식량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했다.
- 세계 농업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부분적 성과를 이

록했다.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출 보조금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94%까지 감소했다. 2015년 12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 및 이 보조금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수출 관련 조치들의 제지에 대한 장관급 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 증진

7. 보건영역은 2000년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인상적인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2030년까지 보건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행과정을 급속화해야 한다. 발병률이 잦은 지역에서 특히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급속히 진행해야 한다.

출산, 임신, 신생아, 아동 보건

- 2015년에 전세계의 임산부 사망률은 신생아100,000명 중 21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임산부의 사망률을 70%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발생률이 2배 이상인 최소 연간 7.5%를 줄여야 한다. 대부분의 임산부 사망률은 예방이 가능하다. 전세계 출산율이2000년에는61%였던 반면, 2016년에는 전세계 출산율의 78%은 출산 시 훈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오직 53%만 순조로운 출산을 했다.
- 전세계의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은 신생아 1,000명 중 43명이 사망하는(2015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2000년 이후로 비율이 44%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2015년에 신생아 1,000명 중 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은 출생 이후 28일이(신생아기) 가장 중요하다. 전세계의 신생아사망률은 2015년에는 신생아 1,000 명 중 19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사망률이1,000명중 3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사망률은 중앙/남부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게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해당지역에서 1,000명 중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 출산과 관련된 보건관리에 대한 유니버설한 접근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청소년기 임신을 예방하는 것은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보건과 웰빙에 매우 중요하다. 혼인 또는 동거관계에 있는 전세계 가임여성(15세부터 49세 여성)은 현대 생활방식에 부합하는 가족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75%였던 반면 2017년에는 78%로 증가했다. 발전과정은 최빈국에서 실질적이었으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 증가했다.

-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출산율은(15세부터 19세 여성) 2015년에는 2000년에 비해 21% 감소했다. 북미와 남아시아에서는 50%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출산율은 청소년 1,000명 중 20명 이상을 출산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의 2/3개국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성 질병

- 그 동안 전염성 질병에 투항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2015년에는 1,000명 중 0.3명, 15세 이하 아동의 중에 0.08명이 HIV에 새로 감염되었다. 이 데이터는 2000년에 비해 각각 45%와 7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HIV감염발생률은 1,000명중 1.5명이 새로 HIV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2015년) 여전히 높게 발생하고 있다.
- 2015년에는 전세계에 결핵감염 건의 수는 10.4백만건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100,000명 중 142건 신규 발생 및 2000년 이후로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의 말라리아 감염 건의 수는 2015년에는 1,000명당 94명이 감염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로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간과되는 열대성 질병으로 인해서 집단치료 및 개별치료를 요하는 인구 수는 2015년에는 1.6억명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010년에 비해 21% 감소했다.
- 2015년에는 B형 감염 보균자 0.9백만명을 포함해서 간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1.34백만명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B형 감염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1세 영유아를 위한 백신이 29%에서(2000년) 84%로(2015년) 증가했다.
- 전염성질병과 사망의 주요한 위험요소로 안전한 물, 소독, 위생서비스(WASH 서비스)의 부족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앙/남부아시아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다. WASH 서비스가 부족한 두 지역에서 측정된 사망률은 전세계 100,000명 중 12명이었던(2012) 반면, 두 지역은 각각 46명, 23명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질병과 정신건강

- 심혈관병, 암, 만성호흡기병 또는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70세 이전) 2015년에 약 13백만명에 달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조기사망의 43%에 달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질병으로 인해 30세부터 70세 사이의 연령대가 죽는 위험은 23%에서 19%로 감소했다. 이것은 2030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1/3정도 감소하고 있다.
-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 2015년에 남성의 자살 수는 여성의 2배인 800,000건에 달했다.
- 담배와 알코올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질병에 부담에 기여한다. 담배 관리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프레임워크 회의(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는 전세계인구의 90%를 대표하는 180개 당사국에 의해서 비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2015년 데이터에 의하면 1.1억명 이상이(대부분 남성) 담배를 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의 흡연 유병률은 23%에서(2007년) 21%로 감소했다(2013년). 2016년에는 15세 이상인 사람의 평균 순수 알코올 섭취량은 연 6.4리터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와 대기 오염은 건강에 큰 위험을 미친다. 전세계적으로 2012년에는 가정 내 맑지 않은 기름 또는 비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한 요리로 인한 실내오염으로 인한 사망 수는 4.3백만건으로 나타났다. 교통과 산업자원 및 쓰레기 연소, 거주지 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은 사망 건이 3백만건 발생했다.

기타 건강 위험 요소

- 2013년에는 15세부터 29세인 남성 중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약 1.25백만명이 사망했다. 전세계 통계를 봤을 때, 2000년 이후부터 교통사고가 약 13%증가했다.
- 전세계적으로 2015년에는 108,000명 정도가 의도치 않은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100,000명 중 1.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로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체계와 펀딩

- 모든 기부국과 다자간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본 보건과 의학연구를 위한 행정비 총액은 2015년에는 약 9.7억달러이었다. 이것은 2010년 이후로 30% 증가한 것으로, OECD 개발지원위원회의 당사국은 4.3억달러를 기여했다.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측정된 데이터 중, 1,000명당 의사가 4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절반은 1,000명당 간호사 및 조산사가 3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국의 대부분은 1,000명당 의사가 1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와 조산사는 3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8. 장애포괄적이고 정당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와 장애인, 소수인종, 난민아동과 도심지역 빈곤아동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노력을 요한다.
 - 2014년에는 전세계 아동 3명 중 2명은 초등교육을 공식적으로 받기 전에 조기교육 및 초등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빈국은 10명 중 4명만 조기교육 및 초등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5년동안의 교육시설 등록 누적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초등교육은 91%, 중등교육이 84%, 고등교육이 63%로 나타났다. 초등교육을 받지 않는 61백만명을 포함해서 약 263백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지 않는 전세계 인구의 70%이상으로 나타났다.
 - 재학중인 아동의 수가 더 많아도, 읽기와 수학능력은 기본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실시된 학습평가연구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24개국 중 9개국, 라틴아메리카 15개국 중 6개국의 초등교육 고학년의 절반 이하는 수학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데이터가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24개국 중 6개국에서 초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절반 이하는 읽기 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형평성 이슈는 교육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부유층 자녀의 20%는 최빈곤층 자녀 20%에 비해 초등교육 고학년과 중등교육 저학년인 청소년의 수준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있는 국가에서는 도심지 거주 아동이 시골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훈련된 교사의 부족과 빈약한 학교시설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협에 놓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훈련된 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44%, 74%, 55%). 게다가 대부분 해당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전기나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없었다.
- 개발도상국 65개국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교육 목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평균 비율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데이터가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절반이상은 40% 이하로 나타났다.
- 학자금을 위한 ODA는 2014년에는 1.2억달러였던 반면, 2015년에는 1억달러로 나타났다. 호주, 프랑스, 대영제국, 북아일랜드가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

9. 성 불평등은 전 세계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 여아들은 그들의 기본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성평등의 달성과 여성·여아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포함하여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성차별(gender-based discrimination)에 대항하는 더욱 적극적이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성차별은 주로 가부장적인 태도 및 이와 연관된 사회 규범에서 기인한다.

- 87개 국가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5세에서 49세의 여성 중 19퍼센트에 해당하는 수가 조사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물리적 폭력 그리고/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폭력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 2012년, 고의적 살인에 의한 피해 여성들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가 친밀한 파트너 혹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살인 피해자들 중 이러한 경우는 단 6퍼센트에 불과하다.
- 아동 결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속도는 더디다. 1990년 즈음, 20세에서 24세의 여성들 3명 중 1명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5년 즈음에는 그 비율이 4명 중 1명을 넘는 정도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동일 기간 동안 15세 미만 여아들의 혼인율이 매우 가파르게 감

소한 데에서 기인한다.

- 해로운 관습인 여성 성기 절제술(여성 할례)은 지난 30년 간 30퍼센트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통계에 따르면, 30개 국가의 몇 지역에서 이 관습이 높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즈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국가들에서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아 3명 중 1명이 이 여성 성기 절제술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는 약 2명 중 1명의 여아가 경험하였다.
- 84개 국가와 지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세 배가 더 넘는 시간을 집안일과 돌봄 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일에 종사하는 시간의 차이가 무급 노동 분야 성 격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세계적으로 국회 상·하원의 여성 참여 비율은 2017년에 23.4퍼센트에 도달했다. 이는 2000년대와 비교하여 10퍼센트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더딘 진전을 볼 때, 여성의 정치적 참여 촉진 및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치적 약속과 할당제 추진, 그리고 더욱 야심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67개국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대다수 국가에서 상급 및 중간 관리자 직급의 여성들은 3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 15세에서 49세의 기혼 여성 중 단지 반이 약간 넘는(52퍼센트) 숫자만이 합의한 성관계와 피임 기구 사용과 관련하여 주체적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이 통계는 2012년 즈음의 45개국의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국가들 중 중 43개국은 개발도상국이다.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10. 안전한 물과 위생 접근권과 건전한 담수 생태계 관리는 인류 건강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다.

- 2015년, 66억 명(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했고 49억 명(세계 인구의 2/3 이상)이 개선된 위생설비를 사용했다. 이러한 접근권이 없는 사람들은 두 경우 모두 시골에 주로 거주한다.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달성과 안전하지 못한 야외 배변 활동을 종식하기 위해선 중

양 및 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시골에서 상당한 진전이 필요할 것이다.

- 효과적인 물 및 위생 관리는 지역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존한다. 2016~2017년 조사에 따르면 74개의 응답 국가 중 80% 이상이 물과 위생 관리에 대한 이용자/공동체의 명확한 참여 절차를 갖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도한 수자원 스트레스(water stress)를 겪고 있다. 수자원 스트레스란 전체 재생가능한 담수 자원 중 담수 용수 비율이 25%를 넘는 것을 말한다. 북아메리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는 60%가 넘는 수준의 수자원 스트레스를 겪어 미래의 높은 물 부족 가능성을 시사한다.
- 2012년 통합 수자원 관리에 관한 조사에 응답한 130개국 중 65%가 국가 차원의 관리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 물 부문에 대한 ODA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체 ODA 지출에 대한 비율은 2005년 이후 약 5%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2015년 물 부문의 ODA 지출은 약 86억 달러로 2005년 이래 실질적으로 67% 증가했다.

<목표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11.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향상은 모든 사람의 에너지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의 목표 달성 부족에 닳쳤다. 의미 있는 개선은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신기술을 수용하려는 국가들의 의지와 더불어 더 높은 수준의 자금 조달과 과감한 정책 약속을 요구할 것이다.

- 2014년에, 인구의 85.3퍼센트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2012년 이래로 0.3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주로 농촌 거주자인 11억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전기 없이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절반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 깨끗한 연료와 조리 기술에 대한 접근은 2014년의 56.5퍼센트에서 2014년에는 57.4퍼센트로 소폭 상승했다. 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30억명 이상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여전히 깨끗한 연료와 효율적인 기술 없이 요리를 하고

있다.

-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17.9 퍼센트에서 18.3퍼센트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그 증가의 대부분은 물, 태양, 풍력 등에서 얻는 재생 가능 전기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의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열과 운송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과제다.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 20개 에너지 다소비 국가 중 3분의 1이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었다. - GDP 단위당 사용되는 에너지 비율. 그 감축은 주로 산업과 운송 부문의 효율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이런 향상은 여전히 에너지 효율성의 세계적인 발전 속도를 두 배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2.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실업률을 감소(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및 혜택의 접근성 향상이다.

- 세계적으로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0.9퍼센트였음에 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1.6 퍼센트였다. 저개발국가에서는 1인당 GDP 성장률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5퍼센트에서,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4.6퍼센트로 빠르게 올랐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2.5퍼센트로 더딘 추세를 보였다. 저개발국가에서 전체적인 연 평균 GDP 성장률은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1퍼센트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4.9퍼센트로 감소하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규정한 목표인 7퍼센트 성장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을 보였다.
- 노동생산성(노동자 당 GDP)의 성장률은 국제적으로 하락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 평균 2.9퍼센트에서 2008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1.9퍼센트로 하락했다. 이러한 성장세의 둔화는 국제 경제의 침체를 나타내며, 곧 생활수준과 실질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세계적으로 실업률은 2016년 5.7퍼센트이며,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 2016년 기준으로 청소년의 실업률은 12.8퍼센트로 성인의 4.4퍼센트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 또한 통계가 있는 국가들 중 76퍼센트 이상에서, 10명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이 교육 시스템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동시에, 일하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가 있는 국가 중 거의 70퍼센트의 국가에서 젊은 여성은 젊은 남성보다 이 상태에 놓일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5세에서 17세까지의 어린이 중 일하는 어린이의 수가 2000년 2억4천6백만 명에서 2012년 1억6천8백만 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노동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반 이상의 아동 노동 인구(8천5백만 명)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이들의 59퍼센트가 농업 분야에서 일한다. 한편,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여아의 수가 2000년부터 2012년 사이 40퍼센트가 감소하면서,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더 큰 진전을 보였다. 한편, 같은 기간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남아의 수는 25퍼센트가 감소하였다.
-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음으로써, 개인과 회사는 소득의 변화 추이 및 현금 유동성에 대처할 수 있으며, 자산을 축적하고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금융 서비스의 접근은 전 세계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5퍼센트 증가하였다. 상업은행 지점의 수는 같은 기간 5퍼센트 증가하였는데, 이 더딘 증가는 디지털 방식에서의 금융 서비스의 접근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2015년 기준 십만 명의 성인 당 60 개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17개의 상업은행 지점이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억 명의 성인들이 새로운 계좌를 가졌으며 금융 기관에서 계좌를 통한 금융 지분을 가진 성인이 51퍼센트에서 61퍼센트로 증가하였다.
-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는 2014년 약간 축소되었으나, 2015년 539억 달러에 도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5.4퍼센트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공여국들이 은행과 농업 분야에 힘입어, 인프라와 성장과 관련한 무역에 대한 약속을 다시 지킨 데 따른 결과이다. 최빈국가(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약속은 2015년에 43억 달러가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172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최빈국가를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인 '개선된 통합 프레임워크(The Enhanced Intergrated Framework)'는 2016년 2분기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여국들의 기여는 2016년 553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중 1730만 달러는 이미 신탁 자금에 지출되었다.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3. 생산량과 고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최빈개도국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GDP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 효과적인 운송 서비스는 고용과 부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2015년도 기준, 항공 운수업의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는 2조 7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3.5%와 같다. 최빈개도국과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국의 경우 항공 운항과 화물 운송의 아주 작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치는 각 전체의 1%내지 2.7% 정도에 그친다.
- 제조업은 경제 성장, 고용, 사회안정성의 주요한 원동력이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 가치가 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2005년 기준 15.3%에서 2016년 기준 16.2%으로 상승했다. 2016년, 북미와 유럽에서 1인당 4,621달러의 제조 가치가 부가되었고 최빈도상국의 경우 100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많은 국가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제조 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북미와 유럽은 배출량을 36%, 동아시아는 23% 줄였다. 10대 제조업 국가에서 모두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전 세계적인 제조 부가 가치의 상당수가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로 이동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배출량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2014년 연구 개발 투자는 2000년 기준 1.5%에서 글로벌 GDP의 1.7%까지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인구 백만명당 연구원 수는 1,098 명이었고 최빈국의 경우 63명, 북미와 유럽의 경우 3,50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ODA는 2010년부터 실질적으로 32% 증가하여 2015년에 570억 달러에 이르렀다. 주요 부문은 운송 및 에너지로 각 190억 달러를 차지했다.
- 제조는 점점 더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미드테크 및 하이테크 제품이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반면(전체 제조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 최빈개도국에서는 비중이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 모바일 휴대폰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되어 이전에 연결될 수 없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글로벌 정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2016년에 전 세계 95%와 최빈개도국의 85%의 인구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경우 29%의 인구만이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었다.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4.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성과는 다른 정도로 나타났다. 여전히 국제 경제 논의의 장 및 금융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송금이 국제 이주 노동자의 가족 및 본국의 공동체에게 생명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송금 비용의 제약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하위 40%의 빈곤층의 1인당 소득 또는 소비량은 83개 국가 중 49개국(세계 인구의 3/4을 차지)에서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쿼터 개혁을 통해 개발도상국(M49 분류 기준에 따름)의 투표권을 2010년의 33%에 비해 2016년 37%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증가치는 여전히 회원 수의 비중인 74%에 미치지 못한다. 2010년의 세계은행의 지배구조 개혁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2000년 이래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서 개발도상국이 보유하고 있는 38%의 투표권에는 변동이 없었다.
-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대한 면세 및 유리한 조건이 확대되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율은 41%에서 50%로 증가했다.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는 49%에서 65%로 증가했다.
-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등하게 누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2015년에는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으로 흘러간 자원이 각 480억 달러와 60억 달러에 이르렀다. 8개 공여국에서 최빈개도국에 국민총소득(GNI)대비 0.15% 이상의 ODA를 지원한다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했다.
- 이주노동자의 송금은 대체로 높은 송금 비용 때문에 가치가 다소 감소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우체국과 송금 업체는 송금되는 금액의 6% 이상을 청구

하고 있고 시중 은행은 11%를 초과한다. 두 경우 모두 3%라는 목표를 훨씬 상회한다. 선불 카드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용과 같은 새롭고 향상된 기술로 인해 집으로 송금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2%에서 4% 정도 낮아졌지만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5. 최근 수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도시 성장이 이루어졌다. 2015년 기준, 전세계인구의 약 54%, 약 40억명 가까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50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는 빈민가 증가, 공기 오염 심화, 사회보장 기초 서비스 및 기반 시설의 부족, 불규칙적인 도시 확장, 재해에 취약한 도시 구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시가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더 나은 도시 계획과 운영이 요구된다. 2016년 기준, 142여개의 국가들 이상이 국가 차원의 도시 정책을 개발 중이다.

- 개발도상국에서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비율은 2000년도 39%에서 2014년 30%로 감소했다.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빈민가에 살고 있는 도시 거주자의 절대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토지 공급 및 주택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였다. 2000년도 약 7억 9천 2백만명의 도시 인구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 약 8억 8천만명의 도시 인구가 슬럼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면서 도시들은 지리적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 인구 증가 보다 도시 영토 확장이 앞섰습니다. 그 결과 도시 인구 밀도는 감소하였지만,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지속가능성은 위협을 받고 있다.
- 고형폐기물의 수거 및 관리는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 고형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을 경우 배수구를 막아 범람을 유발하고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초래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1개국에서 65%의 도시 인구가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였다.
- 대기 오염은 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이다.

2014년 기준, 도시 인구 10명중 9명은 국제보건기구 (WHO)가 정한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공기를 마시고 있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6. 목표 1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제 규범 준수와 함께 국가 및 부문별 계획과 지속 가능한 기업 관행, 소비자 행동이 통합된 강력한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정책들이 필요하다.

- 천연자원의 사용과 경제적 성장을 분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본이 된다. 그러나 글로벌 수치는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국내 재료 소비 (경제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천연자원의 총량)는 2000년과 2010년 사이 단위 GDP당 1.51kg에서 1.73kg으로 증가했다. 국내 재료 총 소비 역시 같은 기간에 480억 톤에서 711억 톤으로 증가했다. 이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천연자원의 사용이 증가한 것에서 일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국가들은 다자간 환경 협약을 통해 대기, 토양, 수질 오염 및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가고 있다.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적어도 하나의 환경 관련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협약의 의무에 따라 각국은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오존층 파괴 물질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의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의 당사국 중 57%,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당사국의 7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의 51%만이 요구 받은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했다. 모든 당사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체재에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7.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가 발표한 2016년 세계 기후 성명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2016년에도 계속되었으며, 2016년 1월 31일 이후 약 1.1°C의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다. 성명서에서 세계기상기구는 또한 2016년까지 전지구의 해빙 범위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기록인 최소 4.14 km²로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 역시 그 해에 400ppm의 기록적

인 최고치에 달했다. 기후 변화 완화와 그에 대한 영향은 201년 11월 일 발효된 파리 협정에 의해 달성된 모멘텀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력을 높이고 위험 요소와 자연 재해를 제한하기 위해 더 심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 파리 협정 당사국들은 연속적으로 국가결정기여를 준비하고, 전달하고,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결정기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대응과 세계의 기후변화 행동의 기여를 반영한다. 2017년 4월 20일 현재 기준, 143개 당사국은 파리 협정에 비준했고, 그 중 137 개 당사국(136개국과 유엔위원회)은 최초로 국가결정기여를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사무국에 전달했다.
- 2017년 4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7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적응 계획의 첫 번째 반복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관련 수요를 해결하고 2025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녹색 기후 기금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기위한 초기의 노력으로 103억달러를 모았고, 선진국인 당사국은 그들의 재정적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 받고 있다.
- 재해 위험 감소 전략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보고된 자연 재해로 16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 많은 국가들이 국가 및 지역 재해 위험 저감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해왔다. 2014년과 2015년에 대부분의 보고 국가들은 환경 영향 평가, 보호 구역, 기후 변화 적응 사업과 프로그램에 입법, 통합 계획을 시사했고, 내부 위험 요인 감소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다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18. 늘어나는 기후변화의 악영향 (해양 산성화 포함), 남획, 해양오염이 세계 바다의 보호구역으로부터 얻은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

- 오염과 부영양화(물속의 과도한 영양소로 흔히 육지에서 흘러온 유거수로 인한 고밀도의 식물 성장과 산소 부족이 동물의 죽음을 초래한다)로 인해 계속

되는 연해 악화가 세계적 추세이다. 초국경수역평가프로그램(Transboundary Waters Assessment Programme)이 평가한 63개의 대형 해양생태계 중 16%가 연안 부영양화로 인해 “높음” 또는 “가장 높음” 위험 범주에 속한다. 이들 생태계는 주로 서유럽, 남아시아, 동아시아, 멕시코만에 있다.

- 해양 산성화는 물속의 탄산염 화학성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산호초 및 껍데기를 가진 연체동물과 같은 많은 해양 생물의 껍데기와 골격을 심각하게 약화할 수 있다. 전 세계 외해 및 해안 지역의 해양 산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산성 수준은 자주 산업화 이전의 한계를 초과한다.
- 남획은 식량 생산을 줄이고 생태계의 기능을 손상하며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의 세계 해양 어류 자원 비율은 1974년 90%에서 2013년 68.6%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 추세는 둔화해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 소규모 수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이에 따라 92개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설문 응답자의 70%가 소규모 어업을 특별히 겨냥한 규제, 정책, 법률, 계획 또는 전략을 도입 또는 개발했다.
-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잘 지원받는 해양 보호구역은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2017년, 국가 관할권(해안에서 200해리까지)에 드는 해양 환경의 13.2%, 국가 관할권을 넘어선 해양 환경의 0.25%, 전 세계의 대양의 5.3%가 보호구역이다.

**<목표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9. 지구의 육상 생태계와 생물종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의 속도는 서로 다르다. 산림 손실의 속도는 감소하였고 산림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리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보존지역을 꾸준히 관리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토지 생산성, 생물다양성 감소, 야생동물 밀렵 및 인신 매매 등의 추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순수한 산림 지역의 손실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헥타르당 산림 바이오매스 축적량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더 많은 보호 구역들이 장기적인 관리 계획과

자발적인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림 지역의 손실 속도는 1990년대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산림 면적은 1990년도 31.6%에서 2010년에는 30.8%로, 2015년에는 30.6%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속도가 늦춰졌다.

- 현재 전 세계 보호구역은 약 15% 정도 되지만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있지는 않다. 천연자원관리와 종다양성 보증을 위해 주요 생물 다양성 영역을 보호해야한다.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육지, 담수 및 산악에서 주요 생물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설정 범위는 육지의 경우 35%에서 47%로, 담수 지역은 32%에서 43%로, 산악지역은 39%에서 49%로 각각 증가하였다.
- 2017년 기준, 전 세계 산악 지역의 76%는 숲, 관목, 풀, 양치류 등을 포함한 녹색 식물이 자리잡고 있다. 중앙 아시아 지역 산악지역의 녹화가 31%로 가장 낮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산악 지역의 녹화 비율이 98%로 가장 높다.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지구 육지 면적 중 식물이 자라는 지역의 약 1/5는 생산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특히 큰 영향을 받았다.
- 레드리스트 지수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는 지속적인 경고 단계이다. 산호 멸종 위험은 기후 변화 및 지역적 위협의 증가로 평가된 모든 종 그룹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호산균병 (Chytrid fungal disease) 역시 양서류종 멸종 위험을 증가시키는 큰 위협 요인이다.
- 야생 생물 밀렵은 보존 노력을 무력화 시킨다. 불법 야생 동물 시장은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하면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야생 동물을 이용한 생산품에 대한 요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제 사회가 대응책을 채 수립할 수도 없다. 2013년에는 코끼리의 상아, 자단(로즈우드), 코뿔소의 뿔이 전체 압류된 야생 동물 및 목재 제품들 중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 가지 국제 협약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유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144개국이 식량 농업 식물 유전자원 활용을 위한 국제 조약을 비준했으며, 96개국이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 2015년에 사용된 생물 다양성 지원을 위한 ODA 금액은 88억 달러로 2014년

에 비해 실질적으로 39% 증가하였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추진하고,
모두에게 사법 접근권을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적이면서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

20. 최근 폭력사건은 증가한 한편, 살인사건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개선된 사법 접근권을 향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고강도의 군사적 갈등으로 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과적이고 책임적이며 포용적인 제도와 함께 평화와 정의를 이행하는 것은 지역별, 지역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2015년 기준, 전 세계 10만 명당 5.2명에서 6.7명이 의도적 살인범죄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살인율은 감소했으나, 라틴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적 살해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적 체벌 및 정신적 공격에 기반한 훈육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76개 국가(대부분 개도국)에서, 1세부터 14세까지의 10명의 아동 중 약 8명이 정기적으로 특정 형태의 정신적 공격과 신체적 체벌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년 동안 발견된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각 국가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에서는 확실한 진전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2014년 기준, 인신매매 피해자는 남성과 소년들보다는 여성과 소녀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여성과 소녀 피해자의 비중이 2004년 84%에서 2014년 71%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강제노동을 위한 인신매매 비중은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전체 인신매매 중 25% 이상이 아동들이며, 소녀의 수가 소년보다 월등히 많다(전체 인신매매 피해자 중 소녀가 20%, 소년이 8%).
 -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성폭력을 들 수 있다. 보고되지 않거나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데이터가 있는 35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18세 이전에 처음으로 성폭력을 경험한 18세~29세 여성의 비중을 보면 0%~16%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판 전 구치소 수감 비율을 보면, 법치와 사법 접근권은 더디게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없이 구금된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2003-2005년 기간 총 수감자 중 32%에서 2013-2015년 기간 31%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 기소하는 사법 시스템의 역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 불투명하고 부담스러우며 비효율적인 규제 및 절차는 부패한 직원이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댓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기업의 18%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뇌물성 댓가를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4%에 비해, 저소득 국가의 기업 비중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 발전을 위한 건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은 종합적이고 투명하며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3개국 중 거의 2개국의 정부지출이 본래 국가예산 규모의 1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7개국 중 1개국 이상이 최소 15%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의 안정성은 점차 개선되어 왔으며, 특히, 남아시아,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0개국 중 약 8개국에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생등록은 개인 인권보호와 사법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많은 지역에서 보편적이거나 거의 보편적으로 출생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0~2016년 기간 보고된 국가별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 평균은 여전히 71%에 불과하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5세 미만 아동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수(46%)만이 출생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제화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나, 더디거나 비효율적인 법 집행이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 110개국 이상이 정보자유법과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법제도를 수립한 국가들 중 47개국은 정보자유법의 예외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부족한 반면, 다른 47개국은 정보자유법에 대한 충분한 시민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데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말 현재, 37%의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인권기준(파리원칙)에 준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한 반면, 57%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국제인권규약의 준수 여부를 검토받고 있다.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21. 그 동안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 파트너십과 협력에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 기여를 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키는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

- 2016년에는 OECD개발지원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ECD)의 당사국 소속 네트 ODA (Net ODA)는 지금까지 최고액인 142.6억달러로 8.9% 증가했다. 당사국의 총 국민소득 중 ODA 백분율은 0.32%로 2015년에 비해 0.30% 증가했다. 기부국이 난민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의 총액을 증가했다. 그러나 난민지원금을 제외하고 측정해도, 지원금은 7.1%나 늘었다. 2016년에는 덴마크(Denmark), 룩셈버그(Luxembourg), 노르웨이(Norway), 스웨덴(Sweden), 영국(United Kingdom)에 이어 독일(Germany)도 ODA지원금을 국민총소득의 0.7% 이상으로 목표하는 것에 동참했다.
- 국제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경영자 보상금과 개인적인 송금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 송금액은 2016년에 575억달러였으며, 그 중 75%가(429억달러)가 개발도상국으로 송금되었다

정보의사소통기술

- 광대역 회선 서비스는 개발도상국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에는 광대역 회선 보급률은 개발된 지역에서 30%에 도달했으나 그 중 8.2%만 도달했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서는 이에 비해 0.8%에 달했다. 인구에 비해 인터넷 접속인원이 개발도상국은 40%, 최빈국은 15%인것에 비해, 개발된 지역에서는 인구의 약 80%가 인터넷에 접속했다. 2016년에는 인터넷 보급률의 세계적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12% 낮게 나타났다. 최빈국의 경우의 젠더갭은(gender gap)이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강화

- 2015년에 역량강화와 국가계획을 위한 ODA 총액은 21억달러였다. 각 분야별 할당된 지원금액은 19%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래로 금액이 균일하게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남아시아에서 5.6억달러, 중앙아시아로부터 4.2억달

러를 수령했다. 지원금의 주 대상자는 공공행정, 환경, 에너지 분과로, 총액은 8.2억달러였다.

무역

- 지난 15년동안, 개발된 지역에서 수출은 31.1%에서(2001년) 44.6%으로(2015년) 증가하는 등 국제무역분야에서 발전이 있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은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무역흑자를 유지했다. 반면에 개발된 국가 수출이 1.1%로 부터(2011년) 0.9%로 감소했다(2015년). 상당수의 변화는 물가 감소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 2015년에는 개발된 국가가 최빈국에게 부과한 수입관세는 농산물은 0.9%, 의류는 6.5%, 직물은 3.2%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2015년에도 개발된 국가가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위한 평균 관세도 변화가 없었다.

세계 이슈

- 125개국은 2016년에 국가주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에 동참했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이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 중 54개국은 이에 대한 총괄적인 과정에 대해 보고했다. 각 국가별 프레임워크는 2016년에 기부국의 지원 중 83%의 새로운 개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데이터, 모니터링, 책무성

- 국가 또는 지역의 절반 이상(154개국 중 81개국)은 2016년에 국가통계계획 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83개국 중 37개국 또는 지역만 공식 통계의 기본 10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적 통계법을 가지고 있었다.
- 2014년에는 개발도상국은 통계구축을 위해서 338백만달러를 금전적 지원으로 받았다. 2010년부터 거의 2.9% 정도 증가한 동안, 총 ODA의 0.18%에 불과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에 부합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은 해당국과 기부출처로부터 자금을 매년 1억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와 정주조사는 분산된 데이터의 원초적인 소스로,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식화, 이행,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25 개국과 지역이 근본적인 데이터 출처가 없는 것에 반해 전세계의 89%에 속하는 국가와 지역은 인구와 정주조사를 최소한 한 분야씩 했다.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의 국가와 지역(246개국 중 138개국)의 절반 이상은(56%) 최소한 90%가 출생일에 대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었다. 사하라 이

남 아프리카에서 53개국 중 8개국만 해당 사항을 포함했다. 같은 시기 동안, 144개국 또는 지역(59%)는 사망일을 데이터에 포함했다. 사망일은 최소한 75%가 포함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오직 53개국 중 9개국만 기준을 맞췄다. 심지어 아직 출생 및 사망등록과 같이 주요한 통계는 등록시스템이 있는 국가에서조차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 보고서>

1. 국문 번역

서론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김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1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은주, 오경진
지속가능발전목표 2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은주, 오경진
지속가능발전목표 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강수진
지속가능발전목표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강수진
지속가능발전목표 5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지속가능발전목표 6	환경운동연합	송한새
지속가능발전목표 7	환경운동연합	배여진
지속가능발전목표 8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지속가능발전목표 9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문도운
지속가능발전목표 1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문도운
지속가능발전목표 11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김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1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문도운
지속가능발전목표 13	환경운동연합	배여진
지속가능발전목표 14	환경운동연합	송한새
지속가능발전목표 15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김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16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지속가능발전목표 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강수진

2. 번역일 : 2017. 06. 20.

3. 발간일 : 2017. 06. 21.

4. 발간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 본 번역본은 공식 번역이 아닌 내부 내용 공유를 위한 초안 번역입니다.
활용에 유의 바랍니다.